

가족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 1995-2005

유정균*

이 연구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지조건,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군·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세 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입지조건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단어: 노인자살률, IMF 경제위기, 이혼, 가족불안정성, 가족해체,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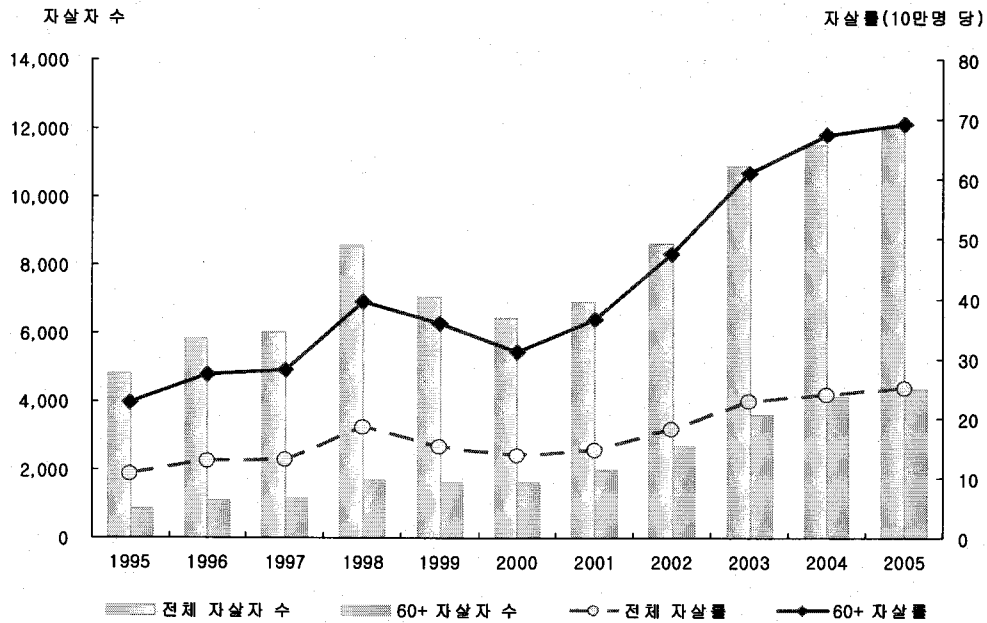
I. 문제제기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로 자살을 꼽을 수 있다. 자살은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전체 자살자 수가 5,000여명에 불과했던 1995년에 비해, 10년이 경과한 2005년에 12,000여명으로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자살의 증가 패턴을 살펴보면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에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감소세를 보이지만,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늘날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7).

자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나타나는 자살자 수와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는 매우 심각하다. 1995년 850여명이었던 자살자 수가 1998년 경제위기로 두 배를 기록하게 된다.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2,700여명, 그리고 2005년에는 4,40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체 자살자 수인 12,000여명의 1/3을 넘어서는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여주는 자살률을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1995년 20이었던 자살률이 2005년에는 70에 근접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자살률이 2005년에 25인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그림 1> 전체 및 노인자살자 수와 자살률의 변화추세, 1995-2005



자료: 통계청(2006).

것을 감안할 때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자살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전체자살률 증가도 심각하지만 노인의 자살은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생활고와 병고,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배우자의 상실과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감이 홀로된 노인들의 자살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수, 2000).

이렇듯 노인자살률의 증가는 가족해체 및 불안정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족구조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IMF 이후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사회구조와 경제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실업,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거나 이혼, 가출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김두섭, 2007). 특히,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속력의 약화로 이어져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한 상태는 자녀양육, 노인부양, 정서적 지원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 중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의 고령화현상을 고려해볼 때 사회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즉,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노인의 경제력 상실과 정서적 지원의 약화로 이어져, 노인자살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혼을 통해 노인자살의 인과구조를 설명하고, 더불어 지역적 편차를 살펴보는 데 있다.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의 자료를 통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 자살 추세와 그 지역적 편차를 밝히고자 한다.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의 자살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가족의 불안정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한다. 가족의 불안정성은 이혼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분석에서 노인의 자살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이혼의 영향을 받으며, 입지조건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인과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군·구 지역단위의 값들을 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노인자살에 관한 논의

자살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은 심리적 혹은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대세를 이루었다. 사회학적 시각으로 자살을 바라본 대표적인 작업은 뒤르카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주요 이론 중 사회통합이론은 자살의 원인이 개인보다 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살률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그는 개인의 통합 정도에 따라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유형 중 노인의 자살은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김형수, 2000). 이기적 자살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 또는 처해진 집단의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살의 유형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환경의 변화나 사회의 해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아노미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규범과 기준들이 새로운 규범과 전통에 의해서 대체됨이 없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즉, 아노미적 자살은 급격한 사회 변동기 혹은 경제적 위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다. 노인들은 정년으로 일터를 떠나고 사회조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고립감 혹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신체적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소멸 등으로 사회집단으로의 통합은 점차 약해진다(Durkheim, 1987).

노인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이 전년도에 비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때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2004). 또한 노인의 높은 자살률은 은퇴, 배우자 상실, 지원의 상실과 같은 고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Bock, 1972). 노인자살이 가지는 특성으로는 성별 차이를 들 수 있다. 전체 수준에서도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노인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박경애, 1996).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Hoxey and Shah, 2000; Kapusta, Etzersdorfer and Sonneck, 2007).

2. 가족의 불안정성과 자살에 관한 논의

이 논문에서는 가족구조의 해체를 측정하는 변수로 이혼을 사용하였다. 이혼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어지며, 이혼 상태는 통합과 규제가 낮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뒤르카임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은 미혼, 배우자 상실, 이혼한 사람보다 통합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사람 또는 이혼한 사람이 미혼보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기혼자가 아이가 없는 기혼자보다 통합정도가 높다고 한다. 즉,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가족 결속력 약화 및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

서도 가족의 통합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이혼을 사용하고 있다(Breault, 1986; Danigelis and Pope, 1979).

이혼과 자살의 관계는 사회통합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연대와 책임감은 상호간의 관심으로 이어져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혼과 자살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준과 국가단위의 분석 모두에서 나타난다. 시계열자료의 분석에서도 역시 이러한 결과는 뒷받침되고 있다(Stack, 1980, 1989, 1992; Wasserman, 1984).

두 개념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혼율이 증가하던 시기에 노인자살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김승용, 2004). 또한 젊은 연령층의 이혼은 노인의 자살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져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령층의 사회적 위기 특히 가족의 위기가 노인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림, 2006).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부모들은 자식의 이혼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를 느끼지 못함은 물론 부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이혼은 사회의 통합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3. 연구설계

이 연구는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가족불안정성과 노인자살률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지역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자살률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자살률 및 자살분포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농촌의 자살률이 도시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나 그 중 농촌사회문제의 심각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되고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농민의 자살, 노총각의 자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의 자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심영희, 1986).

도시화 정도에 따라 지역을 3가지 범주(most urban, middle urban, rural)로 나누어 자살과의 관계를 분석한 미국의 분석 사례가 있다. 종교, 이혼율, 출생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동, 소득, 교육수준, 인구크기 등을 사회적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에서 자살과의 강한 연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walski, Faupel and Starr, 1987). 또한 높은 도시화 수준이 자살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ack, 2000).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노인자살률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IMF로 인한 농촌지역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의 해체현상이 노인의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혼과의 관

계를 통해 분석한다. 가족구조의 해체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일으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그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은 노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의 상실 및 부양 문제는 노인의 경제력 빈곤으로 이어져 자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즉, 이혼이 노인의 자살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검증하고,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원인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과 대비되는 젊은 연령층을 동시에 분석하게 된다. 젊은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자살률의 인과구조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이 노인자살률과 젊은 연령층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밝히고자 한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살률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이혼이 각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이혼은 사회적 통합의 약화를 가져와 자살을 높이는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상실과 자살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를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아내를 잃은 남편들이 남편을 잃은 아내보다 부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Bock and Webber, 1972). 남자노인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하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자노인의 경우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덜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해체는 남자노인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이혼이 미치는 영향은 각 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런 점에 주목하여 남자와 여자자살에 미치는 이혼의 차별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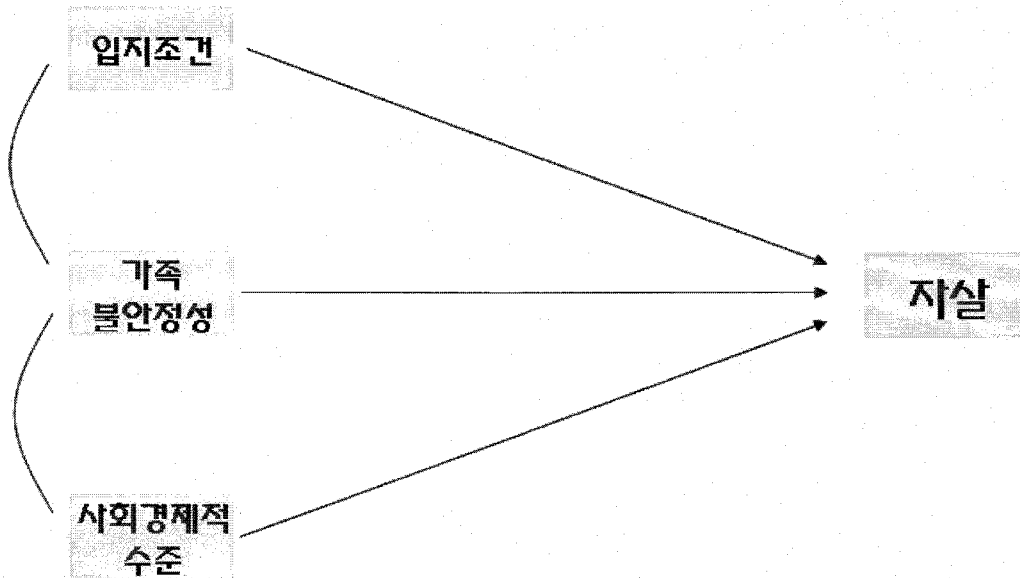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변수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자살연구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시·도 단위별 자살에 의한 사망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역마다 자살사망 수준이 다름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그 원인 및 사회, 경제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박은옥·현미열·이창인·이은주·홍성철, 2007). 여기에서는 234개 시·군·구에서 나타나는 자살의 지역적 편차를 확인하고, 또한 자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변수 및 이혼의 효과를 밝힐 것이다. 그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을 도출하였다. 거주지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는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입지조건 특성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혼의 편차 역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특히 가족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이 노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는데 주력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설계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및 이혼이 미치

<그림 2> 사회경제적 수준 및 가족의 불안정성에 따른 자살의 인과구조 모형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촌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노인자살을 증가시킬 것이다.
- <가설 2> 지역 사회 내의 가족불안정성은 젊은 연령층보다 노인의 자살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가설 3> 가족의 불안정성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남자노인자살률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거시 수준의 지역단위 변수로 시·군·구 단위지역통계와 사망원인통계를 사용하였다. 총 234개의 시, 군, 구가 분석단위이며 1995년과 2000년, 2005년의 자료를 통해 자살증가추세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입지조건,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불안정성, 그리고 자살이 그것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김두섭과 박효준에 의해 작성된 지표를 참고하였고, 이에 이혼율과 자살률을 새로 추가하여 사용하였다(김두섭·박효준, 2003).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지조건: 각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인구밀도가 10,000명/km² 을 넘는 지역은 대도시, 그 밖의 도시 지역은 중소도시로 분류하였다. 도시를 제외한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실제사용변수	변수 조작
입지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밀도 10,000명/km 이상 그 이외의 도시지역 도시를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1인당 지방세 만명당 의료기관 수*	Log(지방세 / 지역 인구) (의료기관 / 지역 인구) x 10,000
가족 불안정성	조이혼율	(이혼건수 / 지역 인구) x 1,000
자살	노인자살률 20-50대 자살률 남자노인자살률 여자노인자살률	(60+ 자살자수 / 60+ 지역인구) x 100,000 (20-50대 자살자수 / 20-50대 지역인구) x 100,000 (남자 60+ 자살자수 / 남자 60+ 지역인구) x 100,000 (여자 60+ 자살자수 / 여자 60+ 지역인구) x 100,000

지방세: 지역 단위로 조사된 지방세 징수액을 지역의 인구 수로 나누어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즉,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자살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의료수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수를 인구 수로 나누어 인구의 크기를 통제된 효과를 가지도록 계산하였다. 즉, 지역 내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를 합산하여 인구 수로 나누고 10,000을 곱하여 인구 만 명당 의료기관수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가용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살시도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혼: 이혼율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가족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통합이 낮아져 자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이혼건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것으로 조이혼율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과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로서 이 자료에서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을 추출한 뒤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노인자살률, 20-50대 자살률, 남자노인자살률, 여자노인자살률을 계산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지역통계와 센서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수 및 이혼율을 측정하였다. GIS를 통해 자살분포지도도를 제시하고, 위의

* 의료기관은 2005년의 자료가 가용치 않아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음(2005년 전국통계연감, 한국도시행정연구소).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자살과 젊은 연령층의 인과구조 차이를 밝힐 것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남자노인자살과 여자노인자살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1995년과 2000년, 2005년의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의 증가추세 및 인과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2>는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노인자살률의 경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약 3.5배 증가하여 70.86이라는 매우 높은 값을 보여준다. 젊은 연령층인 20-50대의 자살률과 비교해보면 노인의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앞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했듯이 노인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은 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노인의 경우 1995년 31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110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추세를 볼 수는 있으나 그 값이 남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남자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지방세, 의료기관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다. 지방세와 의료기관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족불안정성의 일환으로 사용된 이혼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에도 이혼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상 살펴본 주요변수들의 통계량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는 지역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변수들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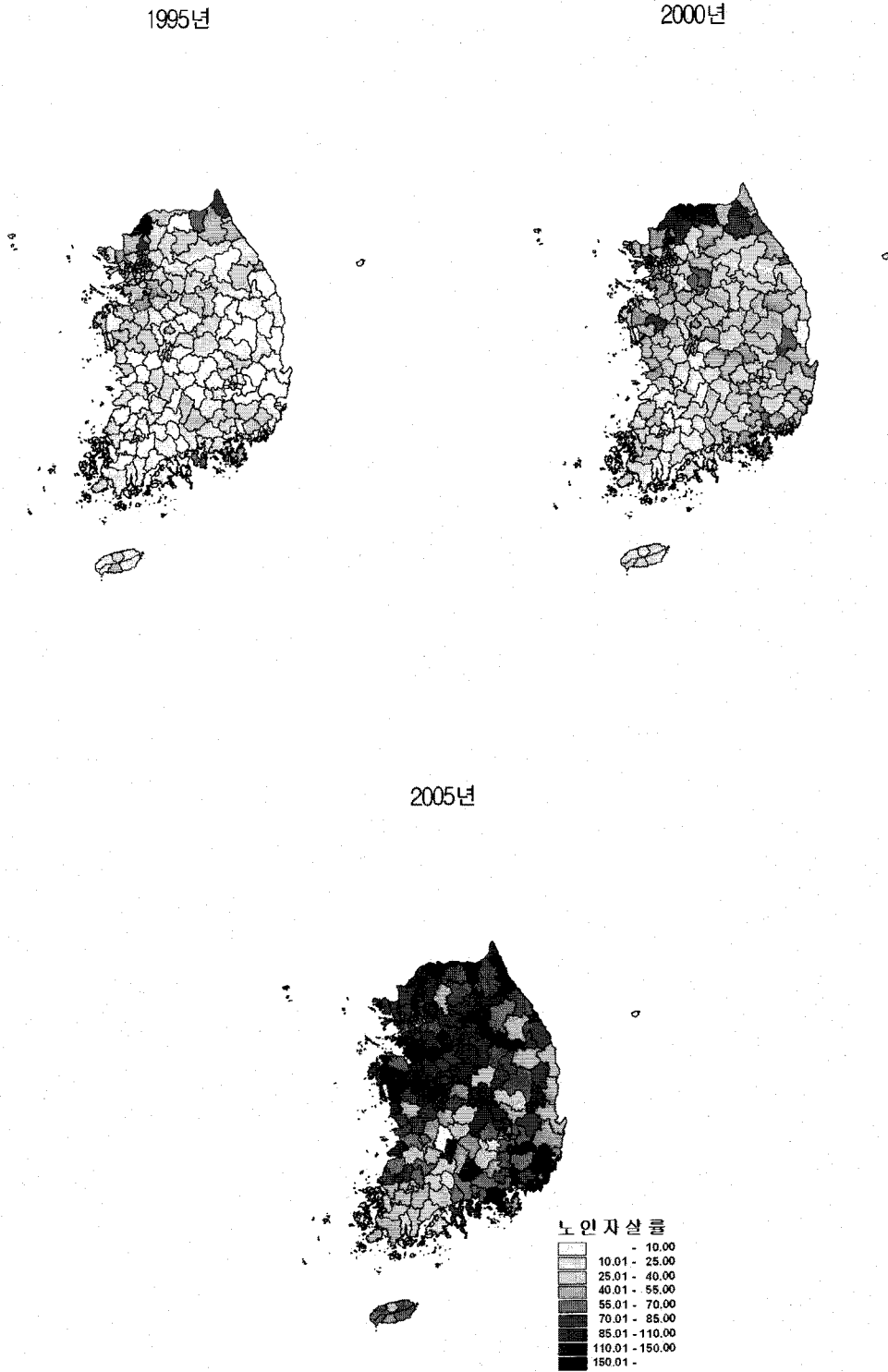
2. 자살률의 분포와 변화추이

앞에서는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ARC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노인자살률을 각 시·군·구별로 작성하였다. 제시된 지도를 통해 지역별 편차와 변화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도를 비교해 보면 음영이 짙어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던 자살률이 2000년에는 경기·강원 북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05년의 지도에서는 자살률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실제로 전라남도 지역의 1990년, 1995년, 2005년의 노인자살률은 3.68, 12.28, 41.79로 전체 지역의 평균인 20.99, 32.37, 70.86보다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자살률				
1995	0.00	119.65	20.99	17.80
2000	0.00	121.95	32.37	19.58
2005	0.00	220.02	70.86	30.20
20-50대 자살률				
1995	0.00	57.96	18.87	10.68
2000	5.06	74.83	24.02	13.96
2005	0.00	82.83	32.80	14.00
남자노인자살률				
1995	0.00	240.67	31.83	32.96
2000	0.00	191.23	49.65	35.63
2005	0.00	368.02	110.88	50.68
여자노인자살률				
1995	0.00	71.33	13.86	15.25
2000	0.00	89.29	20.70	15.86
2005	0.00	187.16	41.71	24.92
지방세				
1995	1.90	3.48	2.39	0.23
2000	2.09	3.64	2.50	0.22
2005	2.36	3.91	2.74	0.22
의료기관				
1995	0.28	12.74	2.73	1.58
2000	0.64	19.16	3.81	1.85
2005	0.00	22.55	4.60	2.21
조이혼율				
1995	0.38	2.58	1.29	0.41
2000	1.07	4.26	2.29	0.56
2005	1.22	4.03	2.45	0.51

<그림 3>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1995-2005



자료: 통계청(1995, 2000, 2005).

고 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자살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확인된 정보를 기초로 이후에는 분산분석을 통해 지역에 따른 자살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입지조건 및 조이혼율에 따른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의 분산분석

이 장에서는 입지조건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이혼율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혼율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의 차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표 3>을 보면 1995년, 2000년, 2005년의 지역별 자살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는 지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대도시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던 1995년과 달리 2000년과 2005년에는 농촌지역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도시는 오히려 가장 낮은 값을 보여준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력 상실과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젊은 연령층의 자살률은 노인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역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률의 전체적인 수준이 노인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도시지역의 자살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보다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자살률의 분포가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과 20-50대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20-50대 연령층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도시 이외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노인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조건별로 자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1995년에 조이혼율이 낮은 지역의 노인자살률은 12.88이나 높은 지역의 노인자살률은 29.20으로 이혼율과 노인자살률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20-50대의 자살률은 노인자살률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조이혼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이 23.48, 중간지역 17.31, 높은 지역 15.75로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결과를 2000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값의 크기만 증가하였을 뿐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노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혼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 역시 낮다. 젊은 연령층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혼율이 낮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이혼율이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인자살률이 20-50대 자살률보다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1995년과 2000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혼율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는 2005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50대 자살률은 중간지역, 낮은 지역, 높은 지역 순으로 자살률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방향성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혼율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20-50대 자살률보다 항상 더 큰 값을 보여준다. 이혼율 수준에 따른 노인자살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유지되는 반면에 20-50대 자살률은 2005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표 3> 입지조건·조이혼율에 따른 노인 및 20-50대 자살률의 분산분석 결과, 1995-2005

		1995		2000		2005	
		노인	20-50대	노인	20-50대	노인	20-50대
입지조건	대도시	26.14	11.30	26.62	12.60	57.73	24.04
	중소도시	22.95	16.35	34.71	18.99	75.35	28.24
	농촌지역	16.13	25.11	32.69	34.34	72.26	41.37
F 비		6.47 ***	40.83 ***	2.63 *	77.61 ***	5.42 ***	42.45 ***
조이혼율	낮은지역	12.88	23.48	27.80	32.15	62.80	38.38
	중간지역	20.66	17.31	32.40	21.84	68.82	28.23
	높은지역	29.20	15.75	37.08	17.83	80.95	32.10
F 비		19.23 ***	12.47 ***	4.49 **	26.60 ***	7.60 ***	11.37 ***

주: *, $P < 0.1$, **, $P < 0.05$, ***, $P < 0.01$.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입지조건 및 조이혼율에 따른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자살률의 분산분석

앞에서 수행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입지조건 및 조이혼율에 따른 자살률이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투입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를 통해 제시하였다.

남자노인자살률의 경우 1995년에는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과 2005년에는 대도시 지역이 가장 낮은 값을 보여준다. 또한 중소도시의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여자노인자살률의 지역별 차이가 2000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95년과 2005년에는 전체노인자살률과 비슷한 패턴으로 고자살률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노인은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1995년, 2000년, 2005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1995년에만 남자노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줄 뿐, 2000년과 2005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조이혼율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 여자노인자살률 보다는 남자노인자살률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조이혼율과 노인자살률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이혼율과 노인자살률은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분산분석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서 그 차이가 더욱 명백하게 나

<표 4> 입지조건·조이혼율에 따른 남자노인 및 여자노인자살률의 분산분석 결과, 1995-2005

		1995		2000		2005	
		남자노인	여자노인	남자노인	여자노인	남자노인	여자노인
입지조건	대도시	36.89	18.09	37.69	17.56	86.02	33.39
	중소도시	37.17	14.32	55.51	20.78	118.08	44.66
	농촌지역	24.15	11.33	49.33	22.07	114.87	42.49
F 비		4.34 **	3.15 **	3.86 **	1.22	6.76 ***	3.18 **
조이혼율	낮은지역	19.37	9.02	43.09	18.39	98.33	39.05
	중간지역	30.41	14.67	47.68	21.86	109.33	39.24
	높은지역	46.21	18.07	58.51	21.89	124.90	46.92
F 비		14.27 ***	7.28 ***	3.90 **	1.26	5.52 ***	2.5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혼율이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입지조건과의 상호작용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혼율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20-50대 자살률은 입지조건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산분석의 경우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 다음 장의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도록 하겠다.

5. 자살률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입지조건과 이혼율에 따라 자살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자살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표 5>와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혼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또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 5>는 노인자살률과 20-50대의 자살률을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방세, 의료기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조이혼율 그리고 입지조건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우선 1995년도의 결과를 보면, 지방세와 이혼율이 노인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다른 변수들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혼율은 노인자살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입지조건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자살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력 역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00년에는 입지조건 및 의료기관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표 5> 주요 변수에 따른 자살률의 회귀분석: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의 비교

	1995년				2000년				2005년			
	노인		20-50대		노인		20-50대		노인		20-50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경제적요인												
1인당 지방세	10.35	0.13 *	-4.19	-0.09	19.74	0.22 ***	-2.33	-0.04	17.59	0.13 *	-9.69	-0.15 **
의료기관	-1.17	-0.11	-0.17	-0.02	-1.92	-0.18 **	-0.25	-0.03	-3.00	-0.22 ***	0.66	0.10
조이혼율	15.72	0.37 ***	4.93	0.19 **	8.92	0.25 ***	-1.70	-0.07	19.24	0.33 ***	2.75	0.10
입지조건 ¹⁾												
대도시	0.74	0.02	-15.70	-0.59 ***	-10.55	-0.21 **	-19.49	-0.55 ***	-15.11	-0.19 **	-19.90	-0.55 ***
중소도시	-0.49	-0.01	-9.90	-0.45 ***	-3.09	-0.08	-13.81	-0.49 ***	-1.95	-0.03	-14.14	-0.50 ***
상수	-20.74		30.11	***	-26.86	*	43.95	***	-7.03		59.02	
R ²	0.15		0.28		0.13		0.41		0.20		0.29	
F 비	8.08 ***		17.27 ***		6.98 ***		31.61 ***		11.27 ***		18.94 ***	
사례수	228		228		234		234		234		234	

1) 더미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농촌지역임.

2) *: $P < 0.1$, **: $P < 0.05$, ***: $P < 0.01$.

등장하였다.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의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의료기관 역시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세와 이혼율은 효과의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세는 영향력의 크기가 커진 반면, 이혼율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50대 자살률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입지조건만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의 분석결과에서는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노인자살률의 경우 의료기관이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더욱 커졌으며, 지방세는 효과의 방향은 유지하고 있으나 크기는 줄어들었다. 이혼율은 앞의 두 시점과 마찬가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0년에 비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농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의 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방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입지조건의 영향은 1995년, 2000년과 동일하며,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조이혼율은 젊은 연령층의 자살률보다는 노인자살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인자살률을 높이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자살률 역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20-50대 자살에 미치는 이혼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비교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첫 해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세 및 의료기관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표 6> 주요 변수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회귀분석: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의 비교

	1995년				2000년				2005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사회경제적요인												
1인당 지방세	8.86	0.06	9.64	0.14 *	28.78	0.18 **	9.62	0.13 *	21.81	0.09	5.05	0.04
의료기관	-1.71	-0.08	-0.79	-0.08	-5.09	-0.26 ***	0.48	0.06	-4.75	-0.21 ***	-1.29	-0.11
조이혼율	26.67	0.34 ***	8.14	0.22 **	15.05	0.24 ***	4.39	0.15 *	27.43	0.28 ***	11.36	0.23 ***
입지조건 ¹⁾												
대도시	-1.75	-0.02	1.53	0.04	-13.45	-0.15 *	-10.50	-0.26 ***	-27.81	-0.21 **	-10.58	-0.17 *
중소도시	1.56	0.02	-1.40	-0.05	0.38	0.01	-5.53	-0.17 **	-3.15	-0.03	-0.95	-0.02
상수	-19.27		-17.25		-34.99		-11.00		12.27		8.30	
R ²	0.11		0.08		0.13		0.06		0.17		0.09	
F 비	5.32 ***		3.72 ***		7.06 ***		2.95 **		9.19 ***		4.42 ***	
사례수	228		228		234		234		234		234	

1) 더미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농촌지역임.

2) *: $P < 0.1$, **: $P < 0.05$, ***: $P < 0.01$.

데, 이혼율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율이 미치는 영향은 남자노인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시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지조건은 일관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지방세, 의료기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2000년에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세는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남자노인의 자살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혼율의 경우 1995년과 마찬가지로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입지조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자노인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자살률이 낮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2005년을 보면 의료기관이 남자노인자살률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이혼율은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 모두에서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노인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통계적인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는 이혼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왔는데, 남자노인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노인의 경우 가족이 제공하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만큼, 해체로 인한 피해 역시 더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자노인의 생활력 및 자립심은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 즉,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가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그동안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이 부족했으며, 이론적인 논의를 고찰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자살률을 가족의 불안정성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역별 편차 및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피기 위해 1995년과 2000년, 2005년의 자료를 사용해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를 234개의 시·군·구로 세분화시켜 지역에 따른 자살률의 편차 및 이혼율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세 시점의 사망원인통계와 시·군·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불안정성, 입지조건을 세 가지 요인을 설명변수로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노인자살률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혼을 사용해 가족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 변수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혼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어지며, 이혼 상태는 통합과 규제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가족 해체로 인한 부양의 문제가 노인의 고립감 및 경제적 빈곤을 증대시켜 자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자살률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젊은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남자노인자살률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이혼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촌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자살을 증가시키길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 사회 내의 이혼은 젊은 연령층보다 노인의 자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남자노인자살률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도를 제시하였으며,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우선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GIS를 통해 세 시점의 노인자살률 지도를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던 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자살률의 분포 및 편차가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지조건 및 이혼율에 따른 분산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대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젊은 연령층인 20-50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없이 농촌지역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노인과 관련된 부양 혹은 경제력 문제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가족불안정성과 자살의 관계를 보기 위해 이혼율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시도한 결과, 앞에서 설정한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일부 변수의 경우 영향력이 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 시점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혼율이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입지조건이 효과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불안정성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혼을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혼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50대의 젊은 연령층 보다는 노인자살률에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해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은 가족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며, 이는 가족기능 상실 및 노인부양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노인부양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노인의 자살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차이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은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배우자 부재를 더 크게 느끼거나 가족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이혼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의 해체가 노인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노인자살률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가족불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가족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혼을 사용하였다. IMF 시기의 실업률 증가와 빈곤 증대는 가족의 위기를 불러와 가족해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노인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겠지만 가족의 기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해체와 가족기능의 상실이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인부양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가족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요즘, 가족안정성을 제고시키거나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급증하는 노인자살의 효과적인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불안정성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추이를 확인하고 밝히고자 했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를 가진다.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자살을 지역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자살에 영향을 주는 인과구조의 변화 및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 역시 지적해 볼 수 있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 사용 가능한 변수들이 많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역단위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변수들이 생성되고, 가용한 변수들이 늘어난다면 더욱 정교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루 빨리 그러한 자료들의 사용이 가능해지길 고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박효준. 2003. “사망력 수준의 시·군별 편차 및 그 변화 추이.” 『한국인구학』 26(1): 1-30.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김승용. 2004.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81-205.
 김형수. 2000.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2): 167-187.

- _____.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박경애. 1996. “성과 자살.” 『가족과 문화』 1: 149-171.
- 박은옥·현미열·이창인·이은주·홍성철. 2007. “우리나라 시·도별 자살 사망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1): 44-51.
- 심영희. 1986. “한국사회의 자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4: 49-71.
- 이상립. 2006. “지역단위 변수를 이용한 자살원인 분석: 사회경제적 요인의 연령별 차별 영향력.” 『인구와 사회』 2(2): 31-52.
- 통계청. 1995. 1995년 사망원인통계.
- _____. 2000. 2000년 사망원인통계.
- _____. 2005. 2005년 사망원인통계.
- _____. 2007. 『KOSIS(한국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통계청.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2005. 2005년 전국통계연감.
- Bock, E. Wilbur. 1972. “Aging and Suicide: The Significance of Marital, Kinship, and Alternative Relationship.” *The Family Coordinator*. 21(1): 71-79.
- Bock, E. Wilbur and Irving L. Webber. 1972. “Suicide Among the Elderly: Isolating Widowhood and Mitigating Alterna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1): 24-31.
- Breault, K. D. 1986. “Suicide in America: A Test of Durkheim's Theory of Religious and Family Integraton, 1933-1980.”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3): 628-656.
- Danigelis, N and Whitney Pope. 1979. “Durkheim's Theory of Suicide as Applied to the Family: A Empirical Test.” *Social Forces*. 57(4): 1081-1106.
- Durkheim, E. 1987. *Le Suicide*. 김충선 옮김(2004). 『자살론』. 청아출판사.
- Hoxey, K. and Ajit Shah. 2000. “Recent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 in England and W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5: 274-279.
- Kapusta N. D., Elmar Etzersdorfer and Gernot Sonneck. 2007. “Trends in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 Austria, 1970-2004: An Analysis of Changes in Terms of Age Groups, Suicide Method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 438-444.
- Kowalski, G. S, Charles E. Faupel and Paul D. Starr. 1987. “Urbanism and Suicide: A Study of American Counties.” *Social Forces*. 66(1): 85-101.
- Stack, S. 1980. “The Effect of Marital Dissolution on Suici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83-92.
- _____. 1989. “The Impact of Divorce on Suicide in Norway: 1951-198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229-238.
- _____. 1992. “The Effect of Divorce on Suicide in Finland: A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36-642.
- _____.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I: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s.” *Suicide & Life - Threatening Behavior*. 30(2): 163-176.
- Wasserman, Ira M. 1984.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Linkage between Suicide, unemployment,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4): 853-859.